

1. 성장과정

“항상 제 관심을 끌어왔던 것은 과학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TV와 냉장고를 분해하여 부품을 바꿔보는 등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유별났습니다. 테스터기로 콘덴서저항을 측정하다가 감전을 당하기도 하였고, 중학교 시절엔 과학 상자에서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로 레이더가 달린 거북선을 만들어 시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엔 친구들과 함께 ‘태양광 전지를 이용한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부품 상가를 돌아다니며 재료를 구하고 직접 제작하면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의 변환 원리를 파악하고 구현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자연스레 기계설계 전공을 선택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기계조립에 앞서 부품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가공함으로써 폭넓은 기계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틀을 확실하게 조립하여 작동할 수 있는 기계조립분야는 저의 오랜 관심의 최종점이자 목표입니다.

2. 자신의성격(강점/약점)

“섬세한 관찰력으로 완벽을 보장합니다”

저의 장점은 누구보다 섬세한 관찰력입니다. 군 부사관 복무 당시 항공기 엔진 주기 검사를 할 때였습니다. 엔진 내부 검사 항목에 없는 부분들을 육안점검 중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늘음이 많아 육안으로는 티가 잘 나지 않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그늘음 문양이었기에 저는 의심하고 NDI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내부에는 더 작고 많은 균열이 있었고 지체됐으면 피로균열로 엔진이 정지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섬세한 관찰력이 빛을 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안전 관련 상을 받았습니다.

저의 단점은 완벽을 위한 끊임없는 확인입니다. 한 예로 대학 시절 프로젝트 조별 과제로 제출할 보고서 확인 작업을 일주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였습니다. 완벽을 위해서지만 많은 시간 소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 집중하여 확인하기, 제3자에게 보여주기 등 많은 방법을 적용하여 단축하고 있습니다.

3. 지원동기

“우연함과 관심이 직업으로”

군 복무 시절 우연한 기회로 2015년 서울 ADEX 행사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접해본 대규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그야말로 신세계를 경험한 듯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방위산업에서 군사 강국으로 커지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저는 방위산업에도 엄청난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전시회에 출시된 모형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립에 관심이 많던 저는 로봇 조립, 가구 조립 등 주위에서 조립이 필요할 때 항상 저를 찾았을 만큼 사소하고 쉬운 것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조립해보고 완성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이런 저의 성향을 바탕으로 생산분야 중 특히 조립분야에서 근무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즐거움, 일이 즐겁고 재밌으니 회사에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4. 입사 후 포부(구체적으로)

“최고의 조립기술자”

입사 후 저의 목표는 완벽한 조립 공정 구축과 불량 없는 제품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OO 의 최고의 조립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불량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조립 전 설명서를 다시 숙지하고 조립에 임할 것입니다. 나만의 점검표를 이용하여 다음 공정으로 가기 전 제품 상태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량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불량이 자주 나는 부위, 제품을 면밀히 파악 후 동료들에게 숙지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량 제로의 조립 공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둘째, 동료들과의 어울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업무 능률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 같이 선배와 후배들과 함께 현대 로템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